

문제 1

1. 일단 비교는 좋은데, 하나 아쉬운게 “즉 자연물인 매화를 통해 온전함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긍정적으로 본다.”, “(가)는 인위적으로 변형을 가한 매화는 아름답지 않다고 주장하며 순리를 따르는 인위성이 배제된 자연스러움 그 자체를 아름답다고 평가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찾으신 결론인가요? 제시문 (가)의 인위적 매화가 아름다우니 경제적 가치가 높는데 이에 대한 병폐만 비판하고 있을 뿐 이가 아름답지 않고, 자연스러운 매화가 아름답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논리 링크가 비어있어요. 인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맞지만, 인위가 아름답지 않다는 주장은 비약입니다.

2. 그리고 2번째 비교를 할때도 편안함이라는 너무 naive한 비교 기준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조화, (다)는 모순적 일치 이 정도로 가셔도 좋은데 편안함이라는 기준은 언제나 뒤뜰릴 수 있는 naive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제시문 (나)도 인위성이 필요하므로, 그 인위성이 편안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반박하실 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총평하면, 비교 형식 자체는 공부를 많이 하신 듯 싶으나 제시문에 근거한 근거보충, 비교 기준의 naive함등이 아쉽습니다. ^^ 그래도 상위 20%안에 드는 답안으로 보이네요.

문제 2

1. 일단 내용상으로 접근하려고 읽어봤는데, 내용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발문 자체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2. 제시문 ‘라’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통해 ‘가’를 해석하는게 발문입니다. 다른 기출문제에서 ‘a’의 관점에서 ‘b’를 해석해라와 같이 간단한 대응문제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관점이란 것은 한 제시문이 아닌 여러 제시문의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 , (나) , (다)를 통해 (라)를 해석하고 다시 이를 (가)로 돌아가는 사실적으로는 (가) -> (가), (나) -> (가) , (다) -> (가) 분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하지만 (가) -> (가)는 당연히 논지가 같죠? 그런데 (가)의 중심논제와 반대되는 문인화가의 입장으로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걸 (가-문인화가) -> (가-글쓴이)로 비판하는 형식인거죠. 이게 여러 가지 관점입니다.

3. 답안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정말 ‘여러가지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발문에 제대로된 요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써보시면서 기출분석을 통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답안입니다.